

서울시 자영업 :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2011. 2. 7 제82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
- II. 서울의 자영업 현황과 서울시 지원책**
- III. 서울시 자영업 지원 정책 방향**

요 약

자영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

서울의 자영업은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 속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69.8%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변동성 확대, 자영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난 악화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자영업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계유지형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자영업자 수는 810,048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소매업(32.6%), 숙박·음식점업(20.9%), 운수업(10.7%) 등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별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의 자영업은 권역별 업종별로 분포가 다양

서울시 3대 주요 자영업인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의 공간적 분포는 업종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소매업은 중부권(중구, 종로구), 강남권(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수업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밀집되어 노원구와 강서구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공간적 특성이 고려된 자영업 지원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의 분포를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수립이 필요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주로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교육’ 등의 교육부문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자금지원 부문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집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업종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자영업 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기능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대한 분석과 시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업종별 자영업 관련 주요 통계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비중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I.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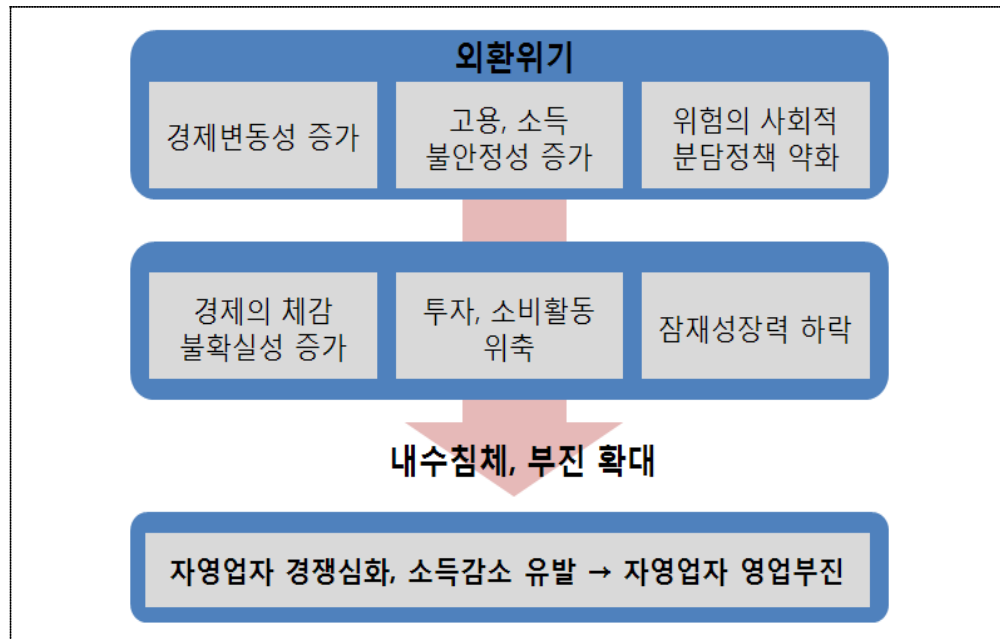
자영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스스로 사업주라는 점에서 여러 위험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자영업은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만개와 28만개씩 감소하였고, 노동시장에서는 100만명의 실업자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로 자영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 신용대란과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감소세
 - 국세청 「자영업국세통계(2010년)」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 3년내 폐업율이 10.4%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자영업 영업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

-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노동,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악화
 - 금융세계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변동성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큰 폭으로 증대
 - 경기변동성 증가는 기업의 투자 위축, 고용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잠재력 약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의 구조적인 침체를 동반
 - 체감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의 영업환경 악화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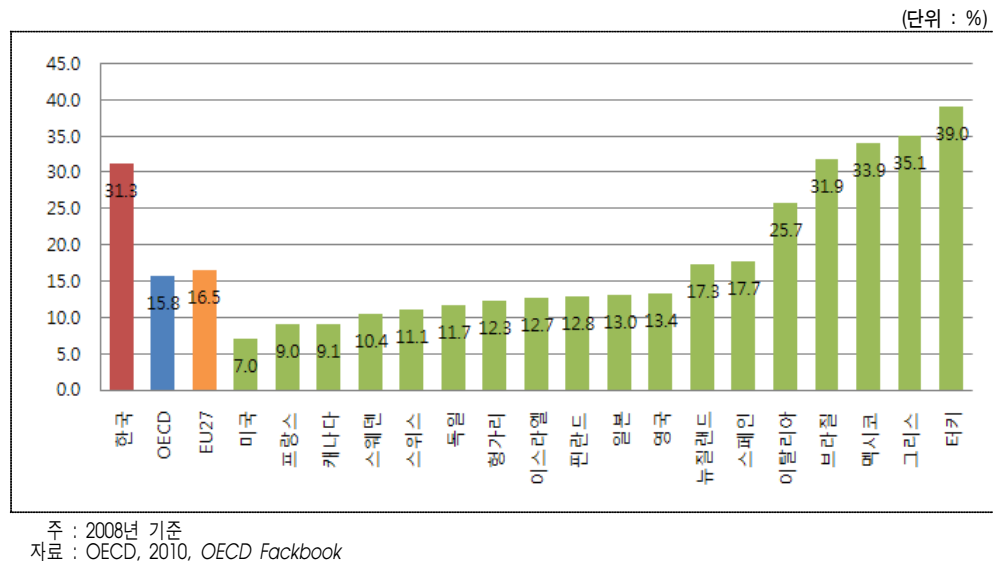
- 또한, 고용시장 악화로 소규모, 소자본으로 창업이 손쉬운 자영업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의 경쟁 심화, 영업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



[그림 1]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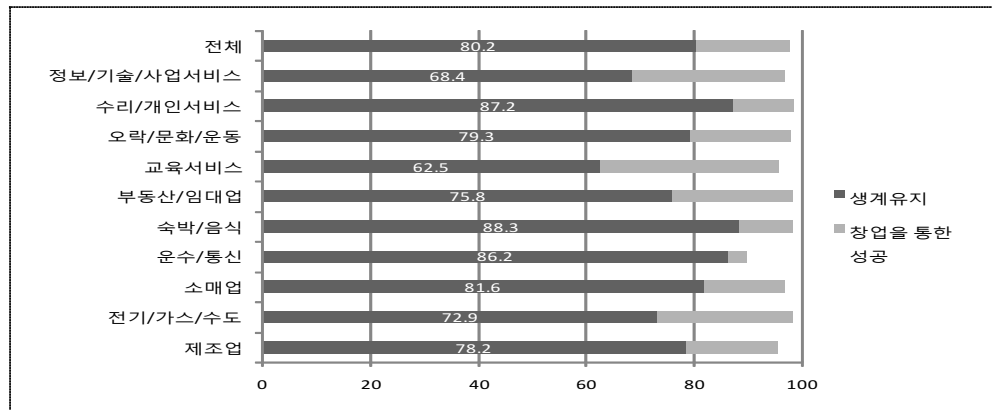
높은 자영업 비중과 전문성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은 치열한 경쟁환경에 직면

-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31.3%로 경제 규모 대비 자영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실정
- 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등에 이어 5번째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
-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높을 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상회하는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15.0%,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15.0~30.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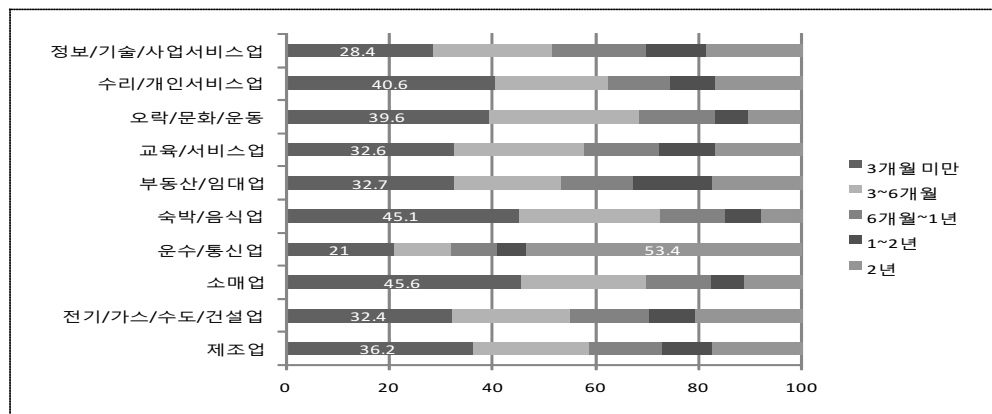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 대부분의 자영업은 생계유지형으로 짧은 기간에 창업이 용이한 음식점 및 소매업을 선호
 -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의 80.2%가 생계유지형
 - 숙박·음식업, 수리·개인서비스, 운수·통신 등의 업종에서는 생계유지형의 비중이 88.3%, 87.2%, 86.2%를 차지
 -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등 창업이 쉬운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
 - 소매업, 숙박·음식업은 창업 준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각각 45.6%, 45.1%
 - 반면 손쉬운 창업 업종에서 높은 폐업률도 기록하고 있는 형편
 - 3년 이내 폐업률은 음식점, 소매업 순으로 각각 19.7%, 15.7%이며, 이는 진입장벽이 낮고 짧은 기간 내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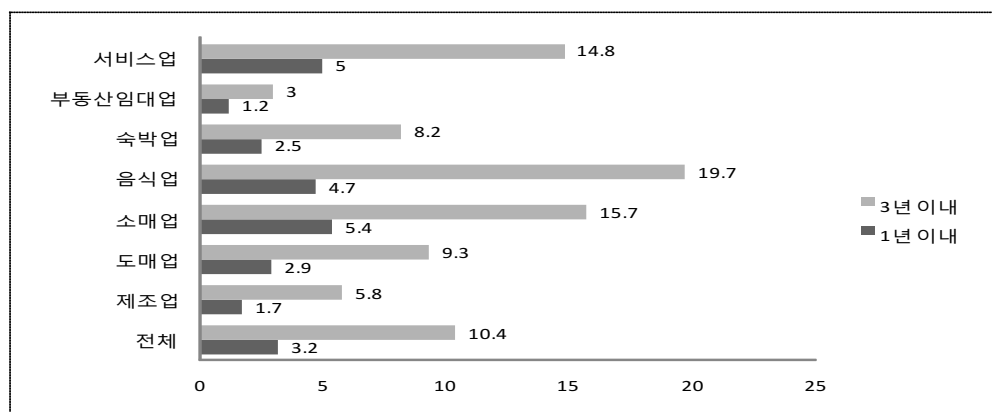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그림 3] 업종별 자영업 동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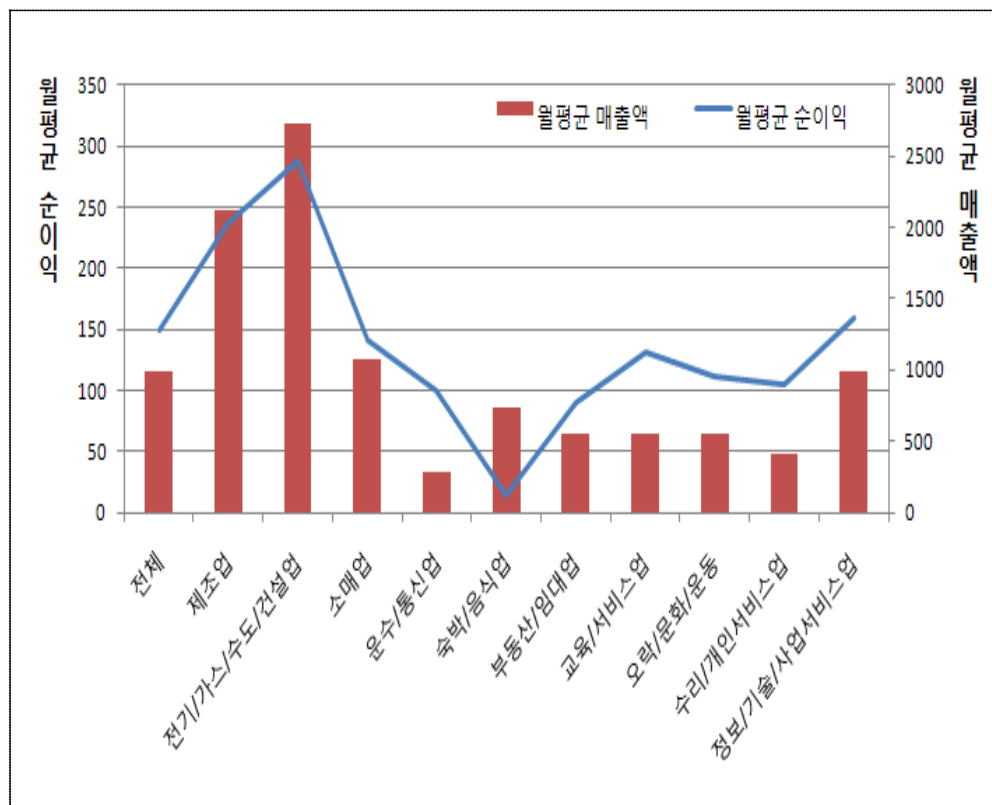
[그림 4] 업종별 창업기간



자료 : 국세청, 자영업 국세통계(2010)

[그림 5] 업종별·사업기간별 폐업자 비율

- 생계형 자영업은 손쉬운 창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낮은 수익성에 직면
- 월평균 매출액 대비 자영업 순이익은 운수·통신업, 수리·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
 - 음식·숙박업의 월평균 매출액은 전체 월평균 매출액과 비슷하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가장 낮은 2.0% 수준
 - 단기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이 낮아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며 대형화와 전문화된 경쟁업체에 밀려 한계상황에서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그림 6]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

- 서울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
 - 자영업은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등과 연관되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서울은 경제구조상 서비스부문에 특화되어 있고, 전체 사업체의 69.8%가 자영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영업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II. 서울의 자영업 현황과 서울시 지원책

서울의 자영업은 대부분 소규모 생계형으로 경기회복세에도 감소 추세

□ 서울의 자영업체 수는 502,498개로 서울 전체 사업체의 69.8%로 큰 비중 점유

- 자영업자 수는 810,048명으로 서울 전체 산업 종사자 수의 19.9%를 차지
 - 자영업 종사자는 주로 도매·소매업(32.6%), 숙박·음식점업(20.9%), 운수업(10.7%) 등에 분포
 - 이들 3개 업종의 자영업체 비중은 64.2%로 규모면에서 자영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소규모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해당

<표 1> 2008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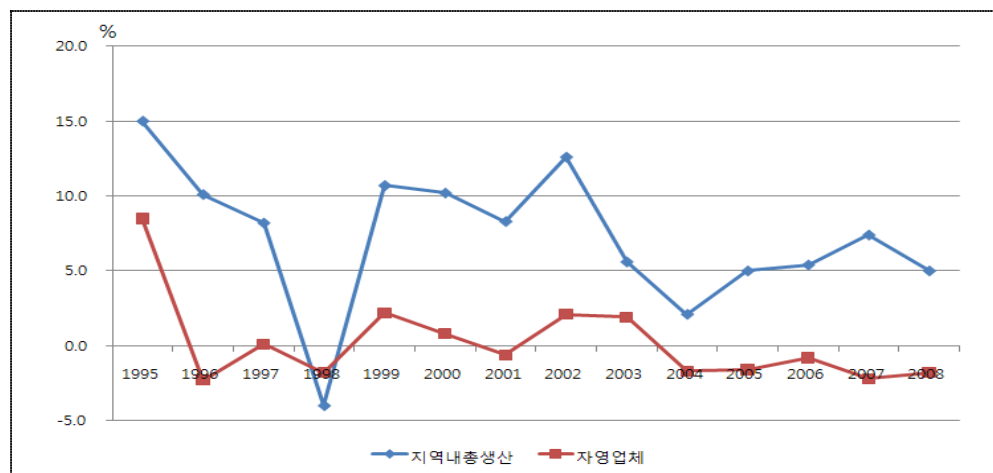
(단위 : 명, %)

산업별(전산업)	서울 전체 종사자		서울 자영업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계	4,079,277	100.0	810,04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74	0.0	0	0.0
광업	735	0.0	1	0.0
제조업	294,649	7.2	62,450	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249	0.3	0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135	0.2	56	0.0
건설업	232,612	5.7	13,244	1.6
도매 및 소매업	768,012	18.8	263,714	32.6
운수업	249,225	6.1	86,664	10.7
숙박 및 음식점업	393,802	9.7	169,035	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5,087	6.3	4,321	0.5
금융 및 보험업	241,494	5.9	1,542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052	3.5	38,721	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5,314	8.5	16,510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2,163	7.4	4,810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3,579	2.8	0	0.0
교육 서비스업	270,794	6.6	29,200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5,599	5.0	21,168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0,624	1.7	31,803	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3,878	4.3	66,809	8.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 2008년 서울 경제는 5.0% 성장한데 반해 자영업은 -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과 2003년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 이러한 서울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4~2007년 기간 중 연평균 -1.6%의 마이너스 성장
- 내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이 최근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 서울 지역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주 : 전년비 증감을 기준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7] 서울 경제성장률 및 자영업체 증감을 추이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은 강북이 높고, 연평균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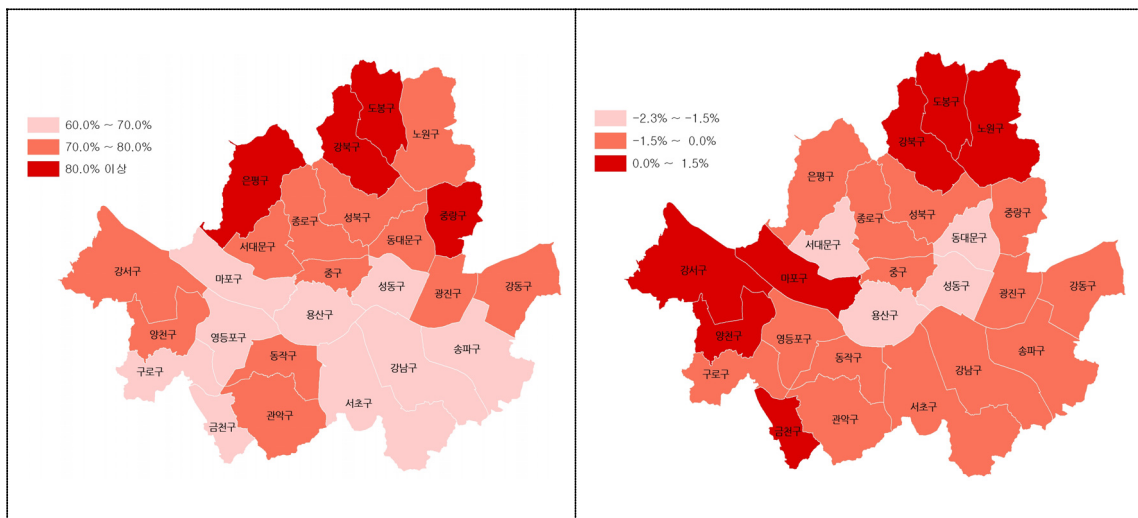
□ 서울의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은 강남보다는 강북이 높은 편

- 서울의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은 평균 71.5%이며, 강북 지역은 평균 74.9%, 강남 지역은 평균 67.2%

- 강북 지역 중 특히 도봉구(82.1%), 은평구 (81.5%), 강북구(81.1%), 중랑구(80.9%) 등은 자영업체 비중이 80%를 상회
- 반면, 강남 지역은 자영업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강남구는 44.9%, 서초구는 50.4%로 가장 낮은 비중

□ 자영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 2000~2008년 기간 중 서울시 자영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0.6%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구 -2.3%, 서대문구 -2.2%, 동대문구 -2.0%로 다른 지역보다 2% 이상 큰 폭으로 감소
- 강남 지역에서는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동구(-0.9%), 구로구(-0.8%), 서초구(-0.6%) 등이 0.5% 이상 감소
- 반면, 강북 지역인 도봉구(1.5%), 은평구(0.8%)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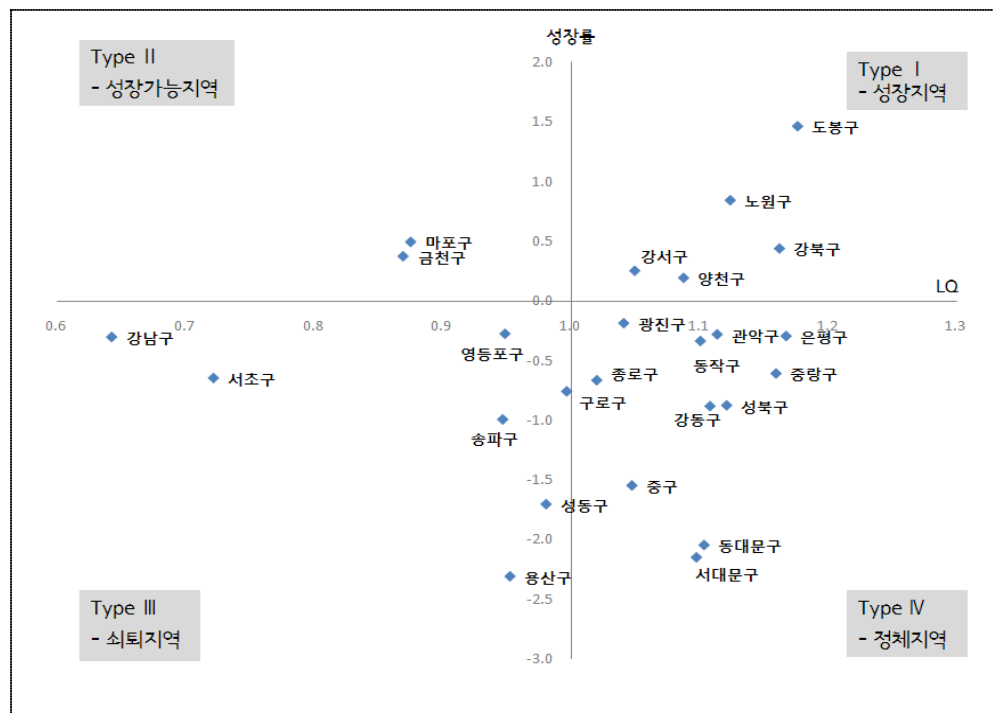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8] 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비중

[그림 9] 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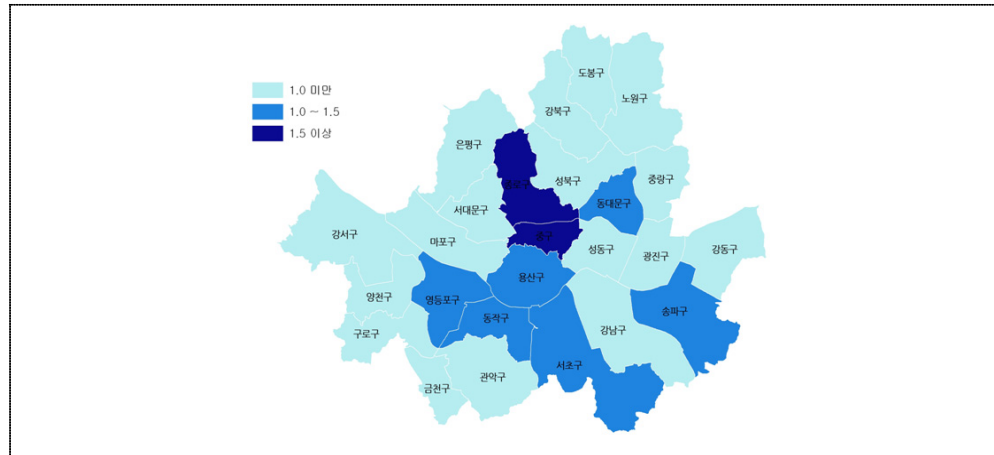
- 성장률과 산업의 클러스터 정도를 나타내는 특화도(LQ)를 이용하면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은 4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가능
- 자영업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성장지역'(Type I)은 강북권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와 강서권의 강서구, 양천구
 - 자영업체 비중은 낮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지역'(Type II)은 마포구와 금천구
 - 자영업체 비중이 낮고 성장률도 감소하는 '쇠퇴지역'(Type III)으로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 등의 부도심 지역
 - 그 외 서울시 자치구는 '정체지역'(Type IV)으로 자영업체 비중이 높지만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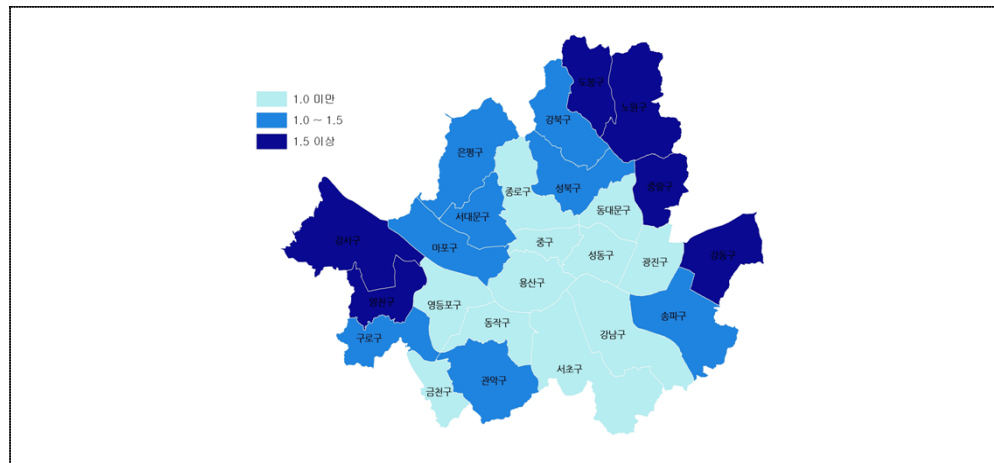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시 자영업체 지역별 특성

자영업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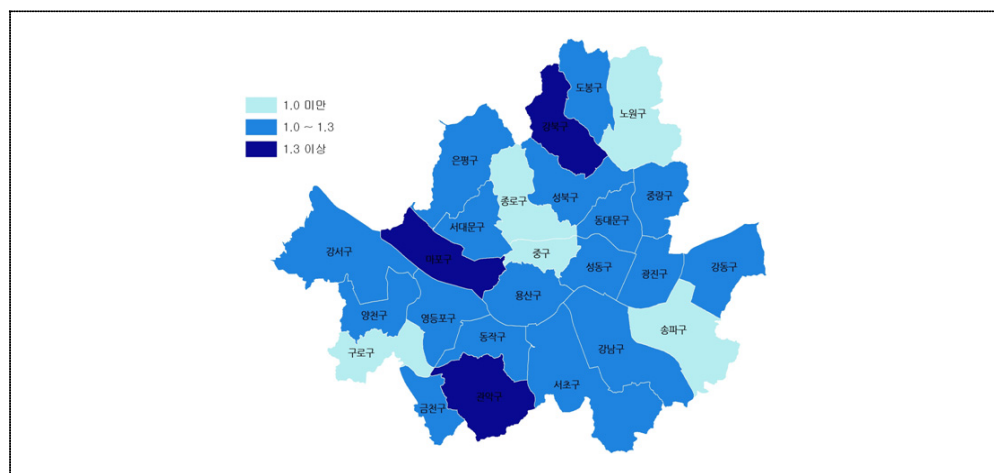
-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울의 3대 자영업은 산업적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상이한 분포 특성을 유지
 - 도매·소매업은 중구와 종로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특화도가 각각 1.9, 1.5에 해당
 - 그 외 용산구 1.2, 서초구 1.1, 동대문구 1.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 전체의 평균 특화도는 0.9
 - 특히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도심권은 서울시 총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로 크고 특화도 역시 높은 지역
 - 운수업은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노원구, 강서구에 가장 많이 분포
 - 운수업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자영업에 비해 더 특화되어 있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2.0 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이는 지역
 -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순으로 발달되어 있고 특화도는 평균 1.5 이상으로 밀집
 - 숙박·음식점업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서울시 전반에 고르게 분포
 - 숙박·음식점업의 특화도는 평균 1.0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악구, 강북구, 마포구 순으로 특화
 - 강북구는 특화도 1.3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종로구, 중구 등 도심권과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는 특화도 1.0 미만으로 낮은 분포로 밀집



(a) 도매·소매업



(b) 운수업



(c) 숙박·음식점업

[그림 11] 자영업 주요 3대 업종의 공간분포

서울시 자영업 관련 지원시책은 여러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하게 구성

- 서울시 자영업 관련 지원 부서는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 창업소상공인과에서는 자영업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주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
 -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아카데미, 경영개선과정, 업종전환과정 등 단기교육 위주로 운용
 -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청년창업, 하이서울 창업스쿨, e-창업스쿨을 운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e-창업스쿨은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 서울시 시책은 4개 부문으로 지원되며, 자금지원과 교육 부문 위주
 - 자금지원 부문에서의 지원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서울시 희망드림 모바일뱅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교육',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창업교육', '고령자 교육',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창업스쿨 교육', 'e-러닝센터' 등

<표 2> 서울시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소상공인과
		서울소상공인 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 재단 위탁)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시립 직업전문학교	서울산업 통상진흥원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스마트샵 육성자금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			
	서울시 희망드림 모바일뱅크	○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
교육	창업 아카데미	○			
	여성 창업과정	○			
	5단계 패키지교육	○			
	창업교육		○		
	고령자 교육		○		
	직업전문훈련			○	
	창업스쿨 교육				○
	e-러닝센터				○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			
	e-러닝센터 수료 후 지원				○
	창업스쿨 교육 수료 후 지원				○
	청년창업 컨설팅	○			○
시설 지원	청년창업 창업공간제공	○			○

주 : ● 중소기업청의 정책, ○ 서울시 시책

III. 서울시 자영업 지원 정책 방향

서울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영업 지원 정책의 통합적 관리

- 자영업은 경제행위의 근간으로 서울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고,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등 포괄적인 문제와 연관
 - 기존의 일괄적인 지원책에서 탈피하여 자영업의 업종별, 권역별 산업적 특성, 공간적 분포가 고려된 지원책이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선진국보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로 규모의 경제성을 상실
 -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선
 - 자영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및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 지역별 자영업의 영업환경과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구축 필요
- 주요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전략
권역별, 업종별 자영업 지원시책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의 분포와 성장을 고려하여 유형 분류 -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책 제시
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세분화된 자영업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 직업전문학교별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자영업의 경영상 주요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지원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 비중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자영업 종합대책 수립 - 장기적으로 자영업 비중 축소와 서울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서울시 권역별·업종별 자영업 지원시책의 차별화

-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업종별로 상이한 산업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
 - 성장지역(Type I)인 강북권과 강서권은 현 사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영업의 확대 및 공영의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을 유도
 - 운수업이 발달되어 있는 강서권은 전문지식 및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영업체의 역량을 강화
 - 성장가능지역(Type II)인 마포구와 금천구는 현재의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특화된 업종의 고도화가 필요
 - 밀집도가 높은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유지와 선택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성을 확보
 - 쇠퇴지역(Type III)인 강남권과 영등포권은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 퇴출이 최소화되도록 지원
 -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는 강남권은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정체지역(Type IV)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으로, 자영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특화되어 있는 도심부(중구, 종로구)는 기업형 업체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및 컨설팅 지원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세분화된 자영업 DB 구축

- 서울시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별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현재 서울종합, 한남, 상계, 엘림 등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직업훈련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실정
 - 조기퇴직자, 청년실업자, 준고령자, 여성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실시
 - 이중 청년실업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조경관리, 네일아트 등 직업훈련이 중복
 -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만 실시
 - 학교별로 학력, 직종, 연령 등 자영업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특성화된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기업 및 창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과 훈련생 간 1:1 맞춤형 직업훈련이 확대 운영되도록 유도
-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자영업의 주요 경영상의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DB 구축이 필요
 - 창업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창·폐업률, 매출액 등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
 - 상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
 - 권역별·업종별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기능의 유기적인 통합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 비중 축소

- 자영업 지원정책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원기능의 유기적인 통합과 서울시 차원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
 -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은 '정보제공-상담-교육-창업' 등 유기적인 기능이 산하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용
 - 효율적인 자영업 지원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업무의 유기적인 기능의 통합이 필요
 - 관련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 관련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
- 장기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을 낮추고 서울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서울의 산업구조상 자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의 비중축소를 유도할 필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외국인 투자유치, 연구개발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추진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